

양록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책

지난 3월 9일 광주전남지회 총회에서 축산신문 윤봉중 사장이 발표한 내용으로 농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한다.

윤 봉 중/축산신문 사장

◇ 현 황

98년말 현재 국내 양록농가수는 1만호, 총 사육두수는 18만두 내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적인 여건변화에 민감한 양록산업은 IMF이후 그 어느 산업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감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슴분양 부진과 녹용판매가 어려워져 폐업 또는 방매현상이 확산됐으며 이로인해 양록업계는 급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위탁경영형태 농가중 상당수가 양록을 포기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기도 했다.

양록업계의 어려움은 IMF의 영향도 있으나 일부이긴 하지만 눈앞의 이익만을 겨냥, 수입사슴 및 녹용을 취급해 온 업체자체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저질 중탕의 난립으로 소비자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범 양록업계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부분 한의약업계는 국산녹용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공공연히 국산녹용이 효과가 없다고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입녹용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국산녹용의 품질에 대한 불신도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저렴한 녹용수입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산 양록산물은 외국산에 비해 고가로 판매돼 왔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품질개선과 생산비 절감노력은 물론 국산녹용의 판로개척과 우수성 홍보에 소홀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사슴사육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나 관련서적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현재 국내 양록농가들의 경영규모는 영세성을 면치 못해 전업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적어도 엘크의 경우 50두, 꽃사슴 2백두 수준(레드디어는 1백두선)으로의 전업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국내 양록업계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보다는 상호 반목과 갈등이 빈번했으며 이는 양록의 산업화와 업계의 권익증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많은 사슴유통이 아직까지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가치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유통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양록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축산산업이

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일부 특수계층에 제한된 고급 축종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경우 한의업계측 입장에 많이 치우쳐 전폭적인 국산녹용 보호대책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반면 녹용의 최대 수출국인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국내 시장공략을 위해 한국정부와 업계를 상대로한 로비 및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 이에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 국내 양록업의 가능성

세계 최대의 녹용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사료비의 최소화로 생산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녹용에 치우쳐 있는 생산물 판매를 녹육 등 다양육산물까지 대중화 시킬경우 수입산 녹용과의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사슴이 수입대체 축종으로 급부상한 것도 이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케이블 TV를 이용한 녹용 및 중탕 판매 등 다각적인 판매전략 전개로 성과물 높이고 있다.

사슴사료 자급화에 대한 연구가 점차 활성화 되고 있으며 녹육을 이용한 요리개발 등 녹용의 부산물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수입 생녹용 불법유통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 실시 등 밀수녹용과 수입 생녹용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는 등 양록업계 자구노력이 최근 돋보이고 있다.

◇ 개선점

사슴사육에서 유통에 이르는 체계적인 산업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학연 공동의 장단기 연구가 하루 빨리 전개되어야 한다. 또 정부와 연계, 양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실시와 과학적 사양관리 지침서의 마련이 필요하다.

범 업계차원의 국산녹용 우수성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무조건 「신토불이」 즉, 국산녹용이 좋다는 식의 홍보는 설득력이 약하다. 따라서 국산녹용의 우수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약리적 효능 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된 내용을 근거로 입체적인 홍보를 펼쳐 소비자 스스로 국산녹용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산녹용 홍보에 모든 양록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긴급하며 효율적인 홍보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사양관리와 사료 자급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녹용의 종량만을 늘리기 보다는 고품질 녹용생산에 주력하되 업계와 학계가 공동의 연구를 통해 종량과 품질면에서 가장 적합한 절각시기를 제시토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우수종육의 체계적 관리와 보급을 위한 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근대적인 유통체계 개선안과 투명성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

수입사슴 및 녹용 등 양록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지원 및 국내 양록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를 위한 업계의 한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양록업계의 화합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 결 론

양록업계의 생존여부와 향후 발전은 결국 양록업계 자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비 절감 노력과 품질개선 및 소비홍보 모두 양록업계 주도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전 양록업계가 화합, 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정책적 지원도 이끌어 낼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